

# 삼요체(誠·敬·信)의 종합적인 이해

鄭大珍\*

## 目次

I. 머리말	IV. 삼요체의 실천적 의의
II. 대순진리와 삼요체	1. 자기수도를 위한 성·경·신
III. 삼요체의 의미	2. 복록과 수명을 위한 성·경·신
1. 진실된 마음 - 誠	3. 소원성취를 위한 성·경·신
2. 예의바른 몸 - 敬	V. 맺음말
3. 신용있는 처세 - 信	

## I. 머리말

대순진리회의 신조에 있어서 삼요체에 관한 연구는 앞서 발간된 논총 3집에 걸쳐서 자세히 논한 바가 있다. 즉 성(誠)과 경(敬) 그리고 신(信)의 의미에 관해서 그 개념과 실천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익히 그 하나 하나의 의미에서 알 수 있었듯이 대순진리를 신앙하고 실천하는 요목(要目)으로서 하나도 빼놓을 수 없는 것임은 물론이려니와 그 상호관계의 측면에서도 삼요체라는 말처럼 한 몸에 고루 갖추어질 때 그 진정한 의미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의 논문이 성·경·신 각각의 의미를 밝히는데 역점을 두었다면 본 고에서는 세가지 개념의 상호관계와 함께 그 종합적인 의미를 살펴보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성 경 신의 세가지가 수도인의 한 몸에 있어서 각각 어떤 지위를 차지하며 나아가 실천수

\* 대순사상학술원 고문

도에서 세가지의 종합적 개념이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는 대순진리의 교리개요를 파악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작업이 되리라고 본다.

대순진리의 교리개요는 먼저 신앙의 대상 그리고 종지 신조 목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서고 나서 종지를 이해하고, 이어서 그 신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 즉 신조가 중요시 여겨진다. 나아가 목적은 그러한 신조를 실천한 결과 맞이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상을 가리킨다. 신조에 있어서 삼요체는 수도인의 생활 전체를 규정하는 것으로 올바른 수도를 위한 유일한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의 논의를 통해 신조의 삼요체가 지니는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것이 신앙과 목적을 이어주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 II. 대순진리의 삼요체

대순진리는 구천상제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한 가르침을 말한다.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상제가 아니면 혼란에 빠진 이 천지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므로 괴롭기 한량없으나 마침내 강제하여 광구천하를 이룩하였다는 것이 대순진리이다. 상제께서는 구천대원조화주신(九天大元造化主神)으로서 인세(人世)에 강림하사 삼계(三界)를 대순(大巡)하시며 9년간의 대공사(大公事)를 설정함으로써 수천년간 쌓인 원울(冤鬱)을 해소하였는데, 그 공사를 일러 천지공사(天地公事)라고 한다. 이는 새로운 천지우주를 만들어 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인류가 살아온 우주세계를 선천이라고 하면 천지공사 이후에 주어지는 새로운 세계는 후천이다. 선천의 모든 악습과 폐단이 사라진 지상낙원의 세계를 후천에서 이루게 된다는 것이다.

천지공사는 또한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다. 천·지·인의 삼계를 뜯어고치는 개벽(開闢)의 공사이다. 개벽은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따라 하는 일이 아니고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도 없었고 이제도 없으며 남에게서 이어 받은 것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닌, 다만 상제에 의해서만이 지

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선천의 인류는 일찍이 상상할 수도 없었던 선경(仙境), 즉 후천세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역사가 지금으로부터 불과 100년 전에 이루어졌으니 결코 오래지 않은 기록으로 남아있다. 그 광구천하의 역사를 숭신(崇信)하여 귀의(歸依)하고자 하는 데서 오늘날의 모든 수도생활이 행해진다.

말하자면 지금 인류가 살아가는 시대는 천지공사 이후 주어진 후천개벽의 시대로서 구천상제께서 확정한 공사(公事)에 의해 모든 역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순진리의 신앙도 여기서 성립하며 무엇보다도 강세한 강증산(姜甌山; 1871~1909)이 구천상제이심을 믿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할 것이다.

구천상제가 9년간 이룩해 놓은 천지공사를 이어서 그 유지(遺志)를 밝힌 분이 도주 조정산(趙鼎山; 1895~1958)이다. 도주께서는 1925년(을축년)에 무극도(無極道)를 창도하면서 도(道)의 체계를 확립하였는데, 상제를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상제로 봉안하고 종지(宗旨)와 신조(信條) 그리고 목적을 정하였다. 종지(宗旨)는 구천상제의 사상을 요약하여 표현한 것이며, 신조(信條)는 그 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고 목적은 대순진리의 궁극적 이상을 가리킨다. 여기서 특히 종지는 내일의 후천세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음양합덕(陰陽合德)은 내일의 후천세계를 구성하는 천지(天地)조판(組版)의 원리이다. 신인조화(神人調化)는 신과 인간이 합본(合本)이 되어 어떠한 부정 불의도 생겨나지 않는 세계를 말한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은 모든 사회생활의 방식을 말하며, 도통진경(道通眞境)은 그와 같은 이상세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말한다. 반드시 그러한 세계가 도래한다는 것이 상제의 천지공사에 대한 믿음이다. 그 세계의 모습을 도주께서 통찰하시고 단일한 사상으로 제시하여 놓았으니 그것이 바로 종지 16자로 표현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구천상제의 모든 사상은 종지 16자를 벗어나서 이해될 수 없으며, 종지를 통해서 보아야만 내일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대순진리의 종지로부터 내일의 세계를 알았다면, 신조란 그 세계에 갈 수 있는 방법을 총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말하자면 종지가 “내일의 세계는

이렇다”는 것을 표현했다면 사강령 삼요체의 신조는 그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서 꼭 이렇게 하라는 지침을 담고 있다. 안심(安心) 안신(安身) 경천(敬天) 수도(修道)의 사강령은 수도인으로서 받아들여야 될 지상명령이다. 안심하고 안신하고 경천하고 수도하는 것이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사람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신(誠敬信)의 삼요체는 수도인이 지녀야 할 모든 자세이다. 수도인으로서 성·경·신(誠敬信)을 갖추지 못하면 더 이상 수도인이 될 수 없다. 매사에 성·경·신이 충만하고 성·경·신으로 수도를 해나가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즉 성·경·신 삼요체는 수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성경신(誠敬信)을 행하는데 있어서는 먼저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정한 바를 어기지 않으며, 언제나 성실하고 사심없는 노력을 다해나가야 한다. 여기서 성(誠)이 드러난다. 몸가짐에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예의바른 자세이다. 어른을 존경하며 신명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항상 경건한 태도를 저버리지 않는 것이 경(敬)을 실천하는 것이다. 신(信)은 일의 결과를 말한다. 자신이 말한 바를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서 실천하고 그 말한 바를 꼭 이루어 낼 때 그 사람을 믿어주게 된다. 여기서 신(信)이 드러난다. 그래서 항상 신용있고 신념으로 가득 찬 사람을 가리켜 신(信)이 있다고 말한다.

성과 경과 신은 이렇게 수도인의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태도의 문제로서 하나도 빠트리지 않고 고루 갖추어져 있어야 만이 의미를 지닌다. 특히 성과 경이 아무리 훌륭히 갖추어진 사람이라도 신(信)이 없으면 허사다. 그 사람을 믿을 수가 없으니 어떤 일도 맡기지 않게 된다. 성과 경에 신이 결합하여 삼요체로서 갖추어져야 비로소 수도를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성경신을 통해 자기를 실현시켜 나가며 또한 스스로 조심하고 서로를 가르쳐 나감으로써 모든 소원을 이루게 된다. 대순진리와 삼요체의 관계는 곧 진리관에 담긴 실천윤리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그 가치실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다음 장에서 삼요체를 이루는 이 세가지 개념을 재검토해봄으로써 그 명확한 이해를 기하고 나아가 개념간의 관련성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 Ⅲ. 삼요체의 의미

#### 1. 진실된 마음 - 성(誠)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말하듯이 「...마음은 일신(一身)을 주관하며 전체를 통솔(統率) 이용(理用)하나니, 그러므로 일신(一身)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움직이고 가만히 있게 하는 것은 오직 마음에 있는 바라 모든 것이 마음에 있다면 있고 없다면 없는 것이니 정성(精誠)이란 늘 끊임이 없이 조밀하고 틈과 험이 없이 오직 부족함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룸이다.」 고 한 것은 성(誠)이 마음의 어떤 상태를 가리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바라는 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주관하는 마음을 항상 틈과 험이 없이 유지하는 것이 성(誠)이라는 것이다. 성(誠)은 또한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상제님을 받드는 일이기도 한데 이는 모든 수도인이 지녀야만 하는 자세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誠)의 마음은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떤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솟아나는 진성(眞誠)을 말한다. 자신의 의지가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성(誠)이 우러날 수 있으며, 일체의 사심(邪心)이 없이 오직 참된 것만을 추구할 때 비로소 성(誠)이라고 한다. 따라서 성(誠)은 그 의미에 있어서 순일무위(純一無僞)하고 미유부동(未有不動)하며 소원성취(所願成就)하는 것으로 나누어 이해되어 질 수 있다.

첫째, 순일무위(純一無僞)하다는 것은 진실한 것으로 순일(純一)무잡(無雜)하다는 말이다. 모든 일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태도가 참되지 않으면 안된다. 맹자(孟子)가 「참된 것(誠)을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이다」(思誠者 人之道也)라고 한 것은 이와 같은 성(誠)의 도를 강조한 것이다. 성실(誠實)한 마음이 넘칠 때 정직과 신의(信義)의 미덕(美德)이 이루어지며 성실한 마음이 부족할 때 거짓과 불의(不義)와 불신(不信)과 부정(不正)이 싹트게 된다.

주자(朱子)는 말하기를 「참되다(誠)는 것은 나에게 있는 이치(理)로서 그것은 모두 다 성실하여 거짓이 없는 것이니 하늘의 도가 본래 그렇다.」(誠者 理之在我者, 皆實而無僞 天道之本然) 라고 하여 내 마음의 성(誠)과 하늘

의 도(道)를 일치시키고 있다. 간혹 우리는 성(誠)을 말하면서 마치 특별한 사람만이 이것을 행하고 또한 그 성격이 보통 사람과는 달라서 그렇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같은 생각은 참된 진리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우주의 참된 진리는 모든 만물과 사람에 두루 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 우주세계에는 항상 이 우주를 유지하고 운행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있어서 조금도 어김이 없이 우주를 운행해 나간다. 이것을 곧 천리(天理)라고 하고 이러한 천리가 만물에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때 모든 사물의 이법(理法) 즉 천도(天道)를 따라서 움직이는 가장 자연스럽고 좋은 상태가 곧 성(誠)인데 인간이 또한 이러한 성(誠)의 본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누구나 성(誠)을 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인간은 하늘과 합일(合一)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러한 성(誠)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에 욕심 또는 사심이 가려있어서 장애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마음이 성(誠)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수도(修道)가 필요한데, 이 때 수도란 자신의 욕심과 사심을 저버리고 오로지 참된 것만을 추구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수도(修道)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저버리게 되면 참된 것만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비로소 성(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의 성(誠)은 본래 스스로 이루어지지만(『中庸』에는 「誠者 自成也」라고 하여 이를 자성(自成)적 성(誠)이라 함) 인간의 성(誠)은 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성(誠)을 이루려는 노력은 인간의 도리(道理)이며(誠之者 人之道也) 이 도리(道理)를 지키기 위한 방안(方案)들이 곧 오상(五常; 仁·義·禮·智·信)이나 삼강오륜(三綱五倫)과 같은 윤리적 덕목(德目)들이다. 이 덕목은 모두 정성스러우며 참되고 거짓이 없는 행동을 말하므로 곧 순일무위(純一無僞)하다고 한다. 남을 속이지 않음은 물론이며 자신을 기만하거나 자아(自我)에 도취(陶醉)되지 않는 행동이 모두 성(誠)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誠)은 또한 진실(眞實)무망(無妄)하다고 한다. 오직 참된 것만을 말하고 어떤 망령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으며 시종일관(始終一貫) 변함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수도(修道)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심(誠心)으로 도(道)에 향하고 세속(世俗)의 잡사(雜事)에 자기의 뜻이 흔들리지 않게 되어야만 수도한다고 할 수 있다. 대순진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러한 성(誠)의 의

미가 강조되고 있다. 신앙의 대상이신 구천상제님을 진실로 받드는 마음이 곧 성(誠)이며, 이 때는 거짓이 없고 꾸밈이 없이 한결같이 받드는 것이어야 한다. 즉 진실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권세나 부(富)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 신앙하는 것이라면 이는 곧 진실로써 마음의 성(誠)을 다한 것이 된다.

둘째, 성(誠)은 미유부동(未有不動)한 마음이다. 성(誠)은 항상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일정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확산되면 변화가 있게 되고 따라서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게 되는데 결국 '지성(至誠)이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맹자(孟子)는 「지극히 성실하고서 남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자는 없으니, 성실하지 못하면 능히 남을 감동시킬 수가 없다.」(至誠而不動者 未之有也 不誠 未有能動者也)고 하여 지성(至誠)을 강조하였다. 즉 지성으로써 모든 사람을 감화시키는 마음을 가리킨 것이다. 성(誠)이라는 것은 비단 자신에게만 있어 진실한 것이 아니며 반드시 자기 밖의 일에 이르러서도 진실 그 자체가 되도록 한다. 이른바 자기를 이루면서 그 밖의 모든 일을 이룬다고 하는 것으로 성(誠)의 본질은 안과 밖을 합하는 도리를 내포하고 있다.(『中庸』; 誠者 非自成己而已也 所以成物也 成己 仁也 成物 知也 性之德也 合內外之道也)

참된 일에 뜻을 두면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일에 방해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난다. 이럴 때 자신은 방황하고 좌절하기가 쉽다. 하지만 자신의 굳은 의지로 쉬지 않고 노력해 나가면 반드시 그 성과를 얻게 되니 이것은 모두 신명과 사람을 감동시켰기 때문이다. 부단한 노력없이 어떠한 감동도 줄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자신이 걸어가야만 하는 도리라고 생각하고 참어나가면 어느새 방해되는 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참된 결실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참는 것이 없이는 참된 수도(修道)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인종(忍從)의 결과가 곧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미유부동(未有不動)의 성(誠)은 이렇게 상대를 향한 부단한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유부동(未有不動)의 성(誠)을 행하는 사람은 천하의 모든 제도에 밝게 되고 경륜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성(誠)을 지니면 천하를 다스리고 천하의 커다란 기강을 세울 수 있으며, 모든 사람

이 그 혜택을 입어 잘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 한 가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성(誠)을 지니면 모든 가족이 그 가장을 중심으로 화목하여 집안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다. 학교의 스승이 이러한 성(誠)을 지니면 모든 제자들이 우러러 받들고 나아가 훌륭한 학문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대순진리의 수도인(修道人)이 이러한 성(誠)을 지니면 선각자(先覺者)와 후각자(後覺者) 할 것 없이 모두가 화합하여 하루 속히 천하(天下)포덕(布德)이 될 수 있다. 천하포덕으로 이 세계가 화평해지고 도화낙원이 펼쳐진다면 그것이 곧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고 자신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니 성(誠)이야말로 모든 실천수행의 관건이 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성(誠)은 소원성취를 위한 마음이다. 구천상제님을 신앙하고 또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받드는 수도인은 그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가 곧 성(誠)이다. 수도의 목적은 곧 도통(道通)이며 이는 수도인에게 있어 소원이 성취된 모습이다.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에는 진실되고 순일(純一)무위(無僞)한 성(誠)의 개념이 들어 있어야 한다. 성(誠)은 스스로 밝은 것이며 또한 모든 것을 밝혀나가는 것으로 참된 결과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자신의 본성이 이러한 성(誠)을 드러내고 나아가 타인의 마음까지도 성(誠)으로 감동시킴으로써 자기를 완성시키고 또 타인을 구하게 되니 이것이 곧 성(誠)의 결과인 것이다.

한 치의 성이 있으면 곧 한 치의 결과가 있고 한 자의 성이 있으면 곧 한 자의 결과가 있다(一寸之誠實, 一寸之事物, 一尺之誠實, 一尺之事物)고 하였듯이 자신이 지닌 성실만큼 그 결과가 나타남을 알아야 한다. 모든 일에 성공을 가름하는 것은 일심 즉 한 마음에 달려 있다.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고 또 한 마음을 가져야 만이 도덕군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다. 이 때 한 마음이란 참된 성(誠)으로 일관하는 마음을 가리킨다. 순일(純一)한 성(誠)을 마음으로 삼고 이것이 발휘되어 모든 일을 행하게 될 때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게 되고 따라서 참된 결실을 이루게 된다. 소원성취의 성(誠)이란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성(誠)이다. 그 마음의 부단한 성(誠)으로 자신의 큰 소원(所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또한 수도인의 자세가 된다.



## 2. 예의바른 몸 - 경(敬)

대순진리회 요람에서 「경(敬)은 심신의 움직임을 받아 일신상(一身上) 예의에 알맞게 행하여 나아가는 것을 경이라 한다」라고 한데서 알 수 있듯이 경(敬)의 의미는 주로 예의에 입각한 몸가짐을 가리키고 있다. 몸가짐은 곧 심신(心身)의 조화로서 이루어지며 이것이 천지신명과 타인을 향한 예의로써 표출될 때 올바른 경(敬)이 된다는 말이다.

모든 처세에 있어서 그 상황에 적합한 예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敬)의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는데, 그 예의를 실천하면서 그 마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경(敬)이 될 수 없다. 수도인의 마음은 항상 대월상제(對越上帝), 즉 신앙대상이신 구천상제를 외경(畏敬)하고 받들어 모시는 자세를 기본으로 하며, 이와 같은 정신으로 웃어른을 존경(尊敬)하고 섬기며 타인을 경애(敬愛)하는 생활이 곧 경(敬)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경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먼저 마음의 자세가 흐트러짐이 없는 주일무적(主一無適)의 뜻과 그 몸가짐의 전형으로서 모든 예의(禮儀)를 갖추는 것의 의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주일무적(主一無適)이라고 할 때 주일(主一)이란 ‘하나를 위주로 한다’는 것이며, 무적(無適)이란 ‘이리저리 변하여 옮겨감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 오직 하나를 향하게 되면 이것이 나아가 심신(心身)의 통일 혹은 집중상태를 가져오게 되니 마음의 일심(一心)상태가 곧 경이 된다. 주(主)자와 같은 용법으로 전(專)자가 쓰이기도 하는데 주일(主一)과 전일(專一)은 같은 뜻이라 하겠다. 유학자 정이천(程伊川)은 이러한 주일(主一)이 곧 경이 됨을 말하고 이것이 곧 일심(一心)이며 정제(整齊)엄숙(嚴肅)하는 것이라고 하였다.(『二程遺書』 권 15) 오로지 그 마음에 정성을 다하고 참된 것을 지닌 자세를 변치 않았을 때 주일(主一)이 되며 전일(專一)이 되는 것이다.

마음이 오직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사람은 누구나 마음을 먹는 대로 행동하게 되는데 옳은 일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바로 행하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마음이야말로 사람의 행동을 주관하는 기관임을 알 수 있다. 이 마음에서부터 사람의 말이 나오고 행동도 나오게 된다.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바르게 먹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나쁜 마음을

먹으면 반드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마련이다. 대순진리회 훈회 가운데 ‘마음을 속이지 말라’고 하였다. 마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은 곧 ‘나쁜 마음을 먹지 말아라’는 것이다. 상대를 해치고자 하는 나쁜 마음을 먹고 상대를 미워하면서 겉으로 아부하며 좋아하는 척 하는 것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나쁜 해를 입히게 된다. 마음은 여기에 있고 몸이 저기에 있으면 마음과 몸이 상반되어 부조화를 가져온다. 그렇게 되면 상대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외면(外面) 가식(假飾)에 힘쓰게 되므로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인간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누가 보든 안보든 그 마음의 진실이 그대로 나타나야만 한다. 따라서 좋은 마음을 먹고 그것이 행동으로 그대로 나타나 있을 때 비로소 경(敬)이 갖추어지게 된다.

윗사람을 섬길 때에도 그 사람을 향한 일심(一心)을 지니는 것이 경(敬)이며, 수도인으로서 상제님에 대한 일심을 지니는 것이 또한 경(敬)이다.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게 되면 그 몸가짐이 부자연스럽고 언제 이탈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대로 하나의 일에 집중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를 경계하여 말씀하시기를 “한 몸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는 그 몸이 찢어지리니 주의하라”고 하였다. 즉 경(敬)은 주일무적(主一無適)으로서 그 마음과 몸의 일치된 자세를 의미하고 있다.

다음으로 모든 예의의 근본으로서의 경(敬)이다. 마음과 몸이 일치가 되어 그 마음을 한결같이 하고 하나의 일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몸가짐도 바르게 된다. 일상생활에서 그 몸가짐이 드러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나 의식(儀式)행사에 있어서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을 대하는 전형적(典型的)인 방법 또는 의식에 있어서의 바른 몸가짐을 총체적으로 아우른 것을 일러 예(禮)라고 한다. 예(禮)라는 글자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시(示)는 제사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곡(曲)과 두(豆)는 각각 제기(祭器)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그 글자의 출발은 원래 종교적인 데서부터 나왔다고 본다. 천지신명을 공경하고 받드는 인간의 태도를 담고 있는 것이 예(禮)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예를 갖추는 그 근본의 자세를 문제삼을 때 경(敬)을 일컬으며, 경은 그래서 모든 예를 행하는 근본으로 인식되어져 왔다.(敬者 禮之本也 ; 『國語』) 『예기(禮記)』 「곡례(曲禮)」 첫머리에 ‘무불경(毋不敬)’이라고 한 것은 예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경의 중요성을 말한 것이며, 언행을 함에 있어서 늘 자신을 경척(警惕)하고 약속(約束)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경(敬)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할 모든 예의의 근본이 된다고 본 것이다.

예(禮)는 인도(人道)의 실천으로써 수도활동에 그대로 표현된다. 특히 인간 관계에 있어서 군신 부자 형제 친우 사제간에 그 예를 잘 지킴으로써 인륜이 바로 설 수 있고 매사가 공정해진다. 나아가 조상을 받들고 신명 앞에 치성을 드리는 일에도 정성스러운 예가 갖추어짐으로써 공경심이 생겨난다. 그리고 예는 때와 장소에 맞아야 하며 서로간의 화합을 조성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이다. 이렇게 예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경을 표현하는 것이고 나아가 진정한 수도가 이루어지는 첩경이 된다 하겠다.

성(誠)과 경(敬)의 관계에 있어서 성(誠)은 인간본연의 바른 마음이며 마음의 본(本) 모습이고 경(敬)은 인간본연의 바른 마음을 찾으려는 표현양식이다. 따라서 경(敬)은 성(誠)에 도달하는 관문(關門)이라 할 수 있으나 양자(兩者)는 엄밀히 구분할 수 없는 표리(表裏)의 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말하자면 성(誠)은 내면성(內面性)을 지니고 경(敬)은 외면성(外面性)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다. 성(誠)만 있고 경(敬)이 없으면 무례(無禮)하고 애살스러워 법을 어기는 경우가 생겨난다. 경(敬)만 있고 성(誠) 없으면 형식에 치우쳐 체면과 가식(假飾)에 힘쓰게 된다. 성과 경은 이렇게 표리가 되어 서로 보완이 되어야만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조화되어 겸비되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안과 밖이 일치한 참된 사람이 된다. 안으로의 참된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할 때 예를 갖추어 전달함으로써 그 사람 말을 믿어주게 되고 이를 꾸준히 반복함으로써 상대를 감화시켜 화합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 3. 신용있는 처세 - 신(信)

신(信)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순진리회 요람』에 「...만고(萬古)를 통하되 사시(四時)와 주야(晝夜)의 어김이 없는 것과 같이 하고 만겁(萬劫)을 경과하되 강하(江河)와 산악(山岳)이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이 하고 기약(期約)이 있어 이르는 것과 같이 하고 한도(限度)가 있어 정한 것과 같이 하여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精誠)하고 또 정성(精誠)하여 기대한 바 목적에도

달케 하는 것…」이라고 하여 마음의 성(誠)과 몸의 경(敬)이 갖추어져 일을 행할 때 드러나는 결과적인 모습을 가리킨다. 즉 신(信)은 진리에 대한 자각을 통해 자발적인 실천을 행하는 것으로 외면가식(外面假飾)이 없는 것, 모든 질서와 예법 그리고 도덕을 행하는 근간이며, 어떤 난관이나 유혹에도 불구하고 기대한 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의심없는 굳은 신념을 말한다.

마음과 몸이 서로 떨어질 수 없고, 또 마음과 몸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행할 수가 없다. 모든 인간의 행위에는 마음과 몸 그리고 일이 항상 삼박자로 붙어 다닌다고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성(誠)없는 경(敬)이 있을 수 없고, 경(敬)없는 성(誠)이 있을 수 없으며 성(誠)과 경(敬)이 없는 신(信)이 있을 수 없다. 그리고 성(誠)과 경(敬)이 아무리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해도 신(信)이 없으면 그 성·경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처럼 세 가지의 진리를 사람이 고루 갖추는데서 비로소 수도인의 자세가 우러나온다고 할 것이다.

신(信)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다양한 용어를 이루고 있다. 신의(信義), 신용(信用), 신앙(信仰), 신념(信念) 그리고 신조(信條)에 이르기까지 내적인 마음과 외적인 실천을 두루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신(信)을 모든 일에 있어서 신용을 얻게 되는 결과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할 때 그 안에는 신앙과 신념 그리고 진실된 행위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신앙은 진리에 대한 자각으로 거기에 절대성을 부여한 것이다. 자신의 경험 속에서 터득된 진리는 굳이 번잡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신의 삶과 유리(遊離)되거나 자기 욕심에 사로잡힌 진리라면 한낱 맹신에 불과하다. 진정한 확신은 자신의 삶 속에서 증명되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서 연장자(年長者)가 연소자(年少者)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낫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경험의 축적이 그만큼 많이 되어 있다는 데에 있다. 많은 것을 보고 겪었다면 스스로 진리에 대한 확신이 설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이 겪어 보지 못한 진리에 대해서는 언제나 의심의 여지가 있게 된다. 그래서 난관이 닦쳤을 때는 쉽사리 진리를 포기하고 기회적인 삶을 택하게 된다. 구천상제님의 대순하신 진리는 무엇보다도 수도인들의 자기 확신을 필요로 한다. 지금으로부터 백여년전의 말씀이지만 오늘날의 인류가 반드시 지키고 살아나가

야 할 진리로서 부각되고 있다. 그 믿음의 내용을 말하자면 첫째는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며, 둘째는 광제창생(廣濟蒼生)을 위해 단행하신 9년간의 천지공사(天地公事)대로 오늘의 세계가 전개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이며, 셋째는 오늘날의 종단인 대순진리회의 신조(信條)대로 행하여야 만이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달성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다. 이 같은 믿음을 위주로 하여 수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을 단속해 나가야 하고 또한 경험과 자각을 통해 확신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신앙은 나아가 일종의 자기 신념으로서 자리잡게 된다. 그 신념에 입각한 모든 실천은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되고 매사에 책임있는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규범은 ‘신의(信義)와 신용(信用)’이다. 친구지간 또는 부부지간에 신의가 없으면 같이 일을 할 수가 없다. 서로 의견이 다르고 마찰이 생길 때 신의가 있으면 서로 양보하는 마음이 생겨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하여 결국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일도 맡길 수가 없다. “그 사람은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 외에는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는 평이 나면 신용 사회에 발을 딛고 살 수가 없을 것이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의심을 받을 것이고 무책임한 사람으로 낙인 찍혀 아무런 입무도 맡을 수가 없는 것이다. 대순진리를 수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신앙이 하나의 신념으로 자리잡아 언제나 타인의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나가야 한다. 이것은 타인으로부터 신용을 얻게 되고 곧 수도인의 말을 믿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구천상제님의 덕화를 선양하는 일도 이와 같은 신용있는 처세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흑세무민하고 타인의 자제들을 유인하는 행태는 곧 대순진리를 오해하게 만들고 덕화를 손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써 사회적 신용을 떨어트리게 된다. 언제나 신념이 바르게 자리잡혔을 때에는 이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칭송받는 수도인이 될 것이며, 매사에 성실한 모습만을 보여 나가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믿음이 내·외적으로 갖추어졌을 때 우러나오는 행동은 항상 참되고 진실한 것이 될 수 밖에 없다. 신(信)의 자의(字義)가운데 ‘진실로’ ‘참으로’의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은 그 행동의 결과가 항상 기대한 바 목적에 도달하였음

을 뜻한다. 어떠한 난관에 부딪혀서라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신념을 고수해 나간다면 반드시 자신이 바라는 바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 어떤 목적을 설정해 놓고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신앙과 신념이 돈독하지 못한 탓이다. 그 목적달성을 위해 나아가고 또 나아가며 정성하고 또 정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진실이 드러나며 그 결과는 참되다고 할 것이다. 말하자면 일의 결과를 참되게 하는 것이 곧 신(信)이며 그 결과에 대한 믿음이 신용으로서 자리잡는다. 대순진리를 신앙하고 신념을 가진 수도인은 매사에 신의를 지킴으로서 신용을 얻게 되고 그 결과 참된 열매로서의 성과를 보이게 되니 모든 사람이 믿어주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성(誠)의 의미에 대해서는 앞서 말하기를 순일무위(純一無僞)하고 미유부동(未有不動)하며 소원성취(所願成就)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경(敬)에 대해서는 주일무적(主一無適)하고 예(禮)의 근본(根本)이라고 하여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성(誠)은 마음의 문제이고 경(敬)은 몸의 문제라고 단정하였다. 이에 비해 신(信)은 일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의 결과를 놓고 볼 때 그 사람이 신용(信用)이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매사에 아주 성실하고 몸가짐이 경건하여 바른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마음의 신(信)이 없다면 결국 일을 해낼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흔들림없는 믿음은 자각으로부터 형성된 확신에서 나오므로 스스로 진리에 대한 확신을 얻어 수도에 정진해나가야만 한다. 신(信)이 성(誠)·경(敬)에 비해 가지는 중요성은 여기에 있다. 즉 아무리 정성이 지극하고 공경이 지극하더라도 믿음이 부실하면 허사이다. 곤경에 부닥치게 되면 성(誠)과 경(敬)은 금방 수그러들기 마련이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곤경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림없이 상제님을 신앙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신(信)이란 성(誠)과 경(敬)이 바탕이 되어 그것이 기대한 바 목적을 이루게 하는 원동력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 IV. 삼요체의 실천적 의의

### 1. 자기수도(自己修道)를 위한 성·경·신

성·경·신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하는 사람의 진실된 마음, 예의바른 몸가짐 그리고 신용있는 처세를 아우르는 요체(要諦)임을 알 수 있다. 이 세 가지가 한 몸에 갖추어져서 모든 수도인들의 일상생활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수도에 대한 지침에 있어서 「대순진리로 창도하신 유법(遺法)의 훈전(訓典)과 요체(要諦)를 봉행하여야 한다.」 「일체의 자부자찬(自負自讚)의 마음을 버리고 수도의 완성을 기하여야 한다.」(『대순지침』 p.50)라고 하였듯이 수도에는 반드시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가르침이 필요하다. 자기를 통제한다 함은 자신의 몸으로부터 생겨나는 나쁜 습관을 제거하고 남의 장점을 본받아 계속 자기를 발전시켜나가는 것을 말한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타인과 화합을 이루어나갈 때 이 사회의 평화도 이룩될 수 있다.

수도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훈회 및 수칙을 진실되게 지켜나가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수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道通)인데, 자신의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 도통은 어느 누가 물품을 수수하듯이 주고 받는 것이 될 수 없다. 언제나 상제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언행과 처사가 일치되게 생활화하여 세립미진(細入微塵)되고, 마음이 무욕청정(無慾淸淨)이 되었을 때 도통진경에 이른다.(『대순지침』 참조) 이로써 수도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한 실천임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남이 지켜보고 있을 때는 조심하다가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는 금방 마음을 속이고 해태하게 되는 것은 수도가 아니다. 캄캄하고 어두운 방안에 있을 때에도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고 자신을 가리키는 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몸가짐을 단속해나가야 한다. 대순진리를 신앙하는 수도인들은 또한 모든 천지신명을 공경하는 경천(敬天)의 강령에 입각해 있다. 설령 다른 사람이 지켜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 자신을 관감(觀監)하는 존재가 곧 신명(神明)임을 믿는 것이다. 너무나 밝게 있으므로 마치 없는 것처럼

보인다. 더군다나 엄위로운 상제님의 존재는 모든 수도인의 일거수 일투족을 살펴보신다고 할 때 수도는 곧 진실된 자신의 모습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체의 자부자찬(自負自讚)은 수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나 부족한 마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반성해 나가는 것이 수도인데 한 때의 성과로 자만하고 거만해 지는 것은 수도인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다. 더군다나 남을 업신여기고 자신의 사욕에 치우치는 것은 신명의 가호를 받지 못하여 자멸(自滅)하는 길이 된다. 여기에 신도(神道)와 인위적인 사도(邪道)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수도인들은 어디서나 신명의 수찰이 있음을 명심하고 속임과 거짓이 없이 도인의 본분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七월에 상제께서 본택에 돌아와 계시므로 김 형렬은 상제를 배알하고자 그 곳으로 가다가 문득 소퇴원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꺼려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 가다가 본택에서 하운동으로 향하시는 상제를 만나 뵈옵고 기뻐하였도다. 형렬은 반기면서 좁은 길에 들어선 것을 아뢰고 「이 길에 들어서 오지 않았더라면 뵈옵지 못하였겠나이다」 고 여쭙니라. 상제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서로 동 서로 멀리 나누어 있을지라도 반드시 서로 만나리라. 네가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나를 좃고 금전과 권세를 얻고자 좃지 아니하는도다. 시속에 있는 망량의 사립이 좋다고 하는 말은 귀여운 물건을 늘 구하여 주는 연고라. 네가 망량을 사귀려면 진실로 망량을 사귀라」 고 이르셨도다. 형렬은 말씀들을 듣고 종도들의 틈에 끼어서도 남달리 진정으로 끝까지 상제를 좃았도다. (교운 1장 7절)

윗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상제님을 신앙하고 추종하는 마음은 어떠한 금전적인 욕심이나 권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 좃는 것이다. 그 마음은 자신의 수도를 위한 것이며 나아가 도통을 이루기 위한 순수한 자세이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상제님을 신앙하고 또 타인을 가르쳐나가야 한다.

자신의 수도를 위한 요체로서 주어진 것이 바로 성·경·신이다. 즉 성경 신을 그 몸에 갖추고 있을 때 비로소 수도의 자세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유지하여 천지신명과 모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가짐을 항상 예의바르게 유지한다. 예의가 결여된 태도는 어디 가서라도 환영받을 수 없다. 무례한 태도로



써 타인을 설득하려고 해봤자 오히려 혐오감만 줄뿐이다. 경(敬)은 대인관계에서 모든 예의를 갖추는데 근본이 되는 것으로 언제나 자신을 단속하는 요체가 된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성·경으로 갖추고 나아가 목적하는 바의 소원을 성취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 신(信)이다.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고 이익을 따지지 않으며 편벽되지 않게 처신해 나가는 데서 신(信)이 드러난다. 이와 같이 성 경 신을 지켜나가는 것은 다름아닌 자신의 수도를 위한 것이다. 누가 지켜본다고 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수도의 목적인 도통을 위해서 꾸준히 스스로 행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해도 수도는 그렇게 자신을 위한 길임을 깨닫는 것이다. 여기에 자신과의 부단한 싸움과 완성을 향한 열정만이 수도를 참되게 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 2. 복록과 수명을 위한 성·경·신

성 경 신이 자기 수도를 위한 길임을 알 때 그 수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혜택이 곧 복록과 수명이라고 할 수 있다. 복록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고 수명은 삶의 양적인 측면을 가리킨다. 삶의 시간적인 양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측면은 더욱 중요하다. 상제의 말씀에 「세상에서 수명 복록이라 하여 수명을 복록보다 중히 여기나 복록이 적고 수명만 길면 그것보다 욕된 자가 없나니 그러므로 나는 수명보다 복록을 중히 하노니 녹이 떨어지면 죽나니라.」(교범 1장 16절)고 하셨다. 복록의 정도가 삶의 질을 가름하는 잣대가 되고 있다. 복록이 많고 그에 맞게끔 수명이 길다면 인간은 보다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복록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금전적인 것, 명예에 해당하는 것, 자손이 많은 것, 이른바 오복(五福)으로서 수(壽)·부(富)·강녕(康寧)·유호덕(攸好德)·고종명(考終命) 등은 인간의 삶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행복의 잣대가 되어왔다. 하지만 이 모든 행복을 누구나 고루 갖추고 살지는 못한다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인간 존재는 그 본질상 언제나 한(恨)으로써 얼룩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보게된다. 수도(修道)라는 것은 이 같은 인간의 욕구가 다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을 자각하고 보다 근원적인 자기발

견을 통해 인생의 행복을 찾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자신의 참 모습이 대우주의 진리와 합치되고 그 일치된 심정으로 이 세계를 바라볼 때 비로소 원만한 경지를 획득하는 것이다. 어떠한 사심(私心)에서 우러나온 욕구도 배제한 채 대우주의 진리로써 바라본 이 세계의 청정(淸淨)한 모습은 일체가 환희 그 자체이다. 더 욕심 낼 것도 없고 더 한스러워 할 것도 없는 원만과 조화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다. 수도의 목적이랄 수 있는 '도통'은 이렇게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한 경지'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여기에 어떤 시한부도 있을 수 없고 또한 물품을 수수하듯이 주고 받을 수도 없는 것임은 자명한 이치이다.

운수를 받는다고 할 때 그것도 또한 도를 닦아 도통하는 것을 말한다. (『대순지침』) 도를 닦는다 함은 곧 자신의 마음을 닦는다는 것이다. 세파(世波)에 휩쓸려 오염된 마음을 인간 본래의 청정한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수도(修道)이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된 습관을 반드시 고치고 타인의 장점만을 취해 나가는 노력은 수도의 대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바뀌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이와 같은 수도의 요체로서 제시된 것이 성·경·신이다. 성·경·신을 지냄으로써 사람은 항상 자신의 마음을 되돌아 보게되고 또 자신의 몸가짐을 경건하게 하며 타인과의 신용을 지키기 위해 부지런히 자신을 연마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경·신은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즉 복록과 수명을 무한히 늘리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상제께서 집행하신 천지공사는 후천의 무한한 복록과 수명을 정하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 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궁을가(弓乙歌)에 조선 강산(朝鮮江山) 명산(名山)이라. 도통군자(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대선생(大先生)이 갱생 하리라고 전하니 이는 대선생(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대선생(代先生)이로다」라고 말씀하셨도다.」(권지 1장 11절) 영원한 복록을 약속하신 것이 천지공사인 만큼 그 복록을 얻기위한 노력은 다름아닌 성·경·신에 달려 있는 것이다.

상제께서 기유(己酉)년 정월 一일 사시(巳時)에 현무경(玄武經) 세 별을 종필하고 한 별은 친히 품속에 지니고 한 별은 도창현(道昌峴)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한 별은 경석의 집에 맡기셨도다.

宙宇詠歌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至氣今至願爲大降

宙宇壽命

至氣今至願爲大降

天地誠敬信 (교운1장 66절)

상제께서 정미년 선달 스무 사흘에 신 경수를 그의 집에서 찾으시니라. 상제께서 요(堯)의 역상 일월성신 경수인시(曆像日月星辰敬授人時)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천지가 일월이 아니면 빈 껍데기요. 일월은 지인(知人)이 아니면 허영(虛影)이요. 당요(唐堯)가 일월의 법을 알아내어 백성에게 가르쳤으므로 하늘의 은혜와 땅의 이치가 비로소 인류에게 주어졌나니라」 하셨도다. 이때 상제께서 일월무사 치만물 강산 유도 수백행(日月無私治萬物 江山有道受百行)을 가르치고 오주(五呪)를 지어 천지의 진액(津液)이라 이름하시니 그 오주는 이러하도다.

新天地家家長歲 日月日月萬事知

侍天主造化定永世不忘萬事知

福祿誠敬信 壽命誠敬信 至氣今至願爲大降

明德觀音八陰八陽 至氣今至願爲大降

三界解魔大帝神位願趁天尊關聖帝君 (교운1-30)

윗 글을 보면 새로운 천지(天地)가 성·경·신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 천지를 만드시는 분이 바로 구천상제이시다. 따라서 상제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성·경·신을 다할 때 후천의 모든 복록과 수명이 주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아울러 성·경·신이 지극하게 수도를 해 나감으로써 후에 지극한 기운을 받아 수도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잠시라도 성·경·신이 결여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져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심(一心)이 필요하다. 일심은 상제님의 진리를 확고하게 이해하여 의심이 없는 안심(安心) 안신(安身)의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복록은 내가 맡았으나 맡겨 줄 곳이 없어 한이로다. 이는 일심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일심을 가진 자에게는 지체없이 베풀어주리라.」(교법 2장 4절)고 하셨듯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신 상제를 믿고 그 무한한 복록이 이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 성·경·신이 빛나게 되고 그 정진(精進)의 결

과로써 복록과 수명이 주어지는 것이다.

### 3. 소원성취를 위한 성·경·신

성·경·신의 실천은 결과적으로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는 전제조건이 된다. 하나의 결과는 그 과정과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 과정이 쌓여서 결과가 된다. 따라서 목적이 있다면 반드시 그 과정에서 갖추어야만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성·경·신은 그 마음과 몸 그리고 처세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천상제님을 신앙하고 또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받드는 수도인은 그 수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요체가 성·경·신이다. 수도의 목적은 도통(道通)이며 이는 수도인에게 있어 소원이 성취된 모습이다. 그 도통의 정도는 노력여하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또 상제께서 말씀을 계속하시기를 「공자(孔子)는七十二명만 통예시켰고 석가는五百명을 통케 하였으나 도통을 얻지 못한 자는 다 원을 품었도다. 나는 마음을 닦은 바에 따라 누구에게나 마음을 밝혀주리니 상제는 七일이요, 중재는 十四일이요, 하재는 二十一일이면 각기 성도하리니 상등은 만사를 임의로 행하게 되고 중등은 용사에 제한이 있고 하등은 알기만 하고 용사를 뜻대로 못하므로 모든 일을 행하지 못하느니라」 하셨도다.(교운1장 34절)

상등 중등 하등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결과를 좌우하는 것이 말하자면 얼마나 지극한 성·경·신을 갖추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한 치의 성실이 있으면 곧 한 치의 사물이 있고 한 자의 성실이 있으면 곧 한 자의 사물이 있다(一寸之誠實, 一寸之事物, 一尺之誠實, 一尺之事物)고 하였듯이 자신이 지닌 성실만큼 그 결과가 나타남을 알고 부단한 정성으로 자신의 큰 소원(所願)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여기에도 일심은 소원성취를 위한 요건으로 작용한다.

이제 범사에 성공이 없음은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없는 까닭이라. 한 마음만을 가지면 안 되는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무슨 일을 대하던지 한 마음을 갖지 못한 것을 한할 것이로다. 안 되리라는 생각을 품지 말라.  
(교법 2장 5절)

성공 즉 소원성취를 가름하는 것은 결국 한 마음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한 마음으로써 그 일의 목적인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니 일심은 소원성취와 직결된다. 그 일심의 표현이 곧 성·경·신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성·경·신이 곧 소원성취의 길이라는 것이다. 성·경·신으로 충만되어 수도를 하여야 성공한다. 성·경·신이 있어야 바라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각하고 이를 생활화해 나가는 것이 수도인의 사명이 될 것이다.

## V. 맺음말

이상으로 성·경·신 삼요체(三要諦)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해 보았다. 신조로서 삼요체가 지닌 의미는 수도의 방법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고 이는 안심 안신 경천 수도의 사강령과 표리일체를 이루는 개념이다. 대순진리를 믿고 따르는데 있어서 그 조건을 다는 것이 있다면 바로 신조라고 하겠는데, 여기서 삼요체는 수도인이 생활속에서 지녀야 하는 몸과 마음의 자세를 말하고 있다. 가장 시발점이 되는 것이 성(誠)이었는데 이는 수도인의 진실된 마음을 가리킨다. 어떤 거짓도 없고 순일무위한 마음으로써 타인을 감동시키는 것이다. 경(敬)은 수도인으로서 모든 예의를 짝듯이 갖추는 것을 말한다. 그 마음에 공경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몸으로 표현되기 마련인데 그 표현의 양식이 예(禮)로써 드러난다. 그래서 일상의 예의를 몸에 익혀두면 자연히 그 마음도 경건해지기 마련이다. 이로써 타인에게 믿음을 주게 되는 것이다. 신(信)은 그 몸과 마음이 일치되어 행동할 때 매사에 신용있는 처세를 하는 것을 말한다. 자신이 말한 바를 반드시 실천에 옮기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없이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낼 때 상대방이 믿어주는 것이다. 신(信)은 이와 같이 그 사람이 일해놓은 결과를 보고 얻게 되는 심정이므로 일의 결과 즉 신용있는 처세라고 보았다. 성·경·신의 의미는 이와 같이 수도인의 마음과 몸 그리고 일에 있어서 혼연일체가 된 자세로써 요약될 수 있다.

성·경·신의 자세를 갖추고 수도해 나갈 때 이는 궁극적으로 자기수도를

위한 것이며, 자신의 복록과 수명을 위하고 소원성취를 위한 데 그 실천적인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하겠다. 남에게 잘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며 어떤 명예나 권력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며 오직 수도의 목적인 도통(道通)을 얻기 위한 정진(精進)의 과정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성·경·신 삼요체(三要諦)는 그 개념에 대한 지식적인 이해도 중요하지만 대순진리의 신조(信條)로서 제시된 만큼 실천수도 속에서 깨닫는 것이 더 본질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수도(修道)라는 말의 저의에서는 이해의 차원보다 경험적인 자각이 그 본질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더욱이 수도인의 성·경·신이 사회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구천상제의 진리가 널리 선양되고, 나아가 상제께서 이룩해 놓으신 천지공사를 하루 속히 이 땅에 실현하는 길도 수도인의 성·경·신에 달려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